

국가예산 확보 '막판 스퍼트'

정현을 익산시장, 예결위·기재부 등 핵심인사 만나 주요사업 증액 요청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역대 최대액 확보를 위해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8일 내년도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가동 시점에 맞춰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는 17일부터 예산심의 '최종판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예산심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본격 진행 중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회 예결위원과 기재부 간부 등 정부 핵심인사 등에게 익산시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예결위 증액요청 예산의 최종 반영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박근혜 사회예산 심의관을 비롯한 각 예산과장 등을 만나 고용·문화·환경 분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종사자의 안전 지식·합의를 위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사업 증액,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백제 금마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새만금(금강) 수계 수집계산을 위한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을 만나 전북권 산재환자의 건강권과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익산시 중점사업에 대하여 예결 소위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18일 제31회 오성문화제전을 오성산 정상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31회 오성문화제전 개최

군산시, 오성산 정상서... 백제 오성현의 우국충절 정신 계승

군산시는 18일 제31회 오성문화제전을 오성산 정상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백제 오성현의 우국충절 정신을 군산시민들에게 계승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오성문화제전은 시가 주관하고 오성문화제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250여 명이 참여했다

제1부 오성대제례는 봉제선인, 참례자 제배, 초헌례, 독축 초헌·아헌·중헌례, 참례자 제배, 방료례, 종제선언으로 진행됐다

제2부 추모식에서는 개식사, 국민의례, 헌공대례, 헌화, 찬가, 헌시낭송, 헌무, 대화사, 추모사,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문화원 관계자는 "오성문화제전을 통해 나라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숭고한 오성인의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면서 "선인들의 충정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일파현 고적조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공멸 시 오성산에서 병력을 쭈뼛시킨 가운데 안개로 길을 잃고 헤맬 때 문득 다섯 노인을 만나 그들에게 사비로 가는 길을 묻자 이에 노인들은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왔는데 우리가 어찌 길을 가리켜 줄 것이냐" 하고 항거하다 참살 당했다

이들의 충절을 기리는 오성인의 묘가 오성산 정상에 내란이 안치돼 있다

문화원 관계자는 "오성문화제전을 통해 나라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숭고한 오성인의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면서 "선인들의 충정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일파현 고적조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공멸 시 오성산에서 병력을 쭈뼛시킨 가운데 안개로 길을 잃고 헤맬 때 문득 다섯 노인을 만나 그들에게 사비로 가는 길을 묻자 이에 노인들은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왔는데 우리가 어찌 길을 가리켜 줄 것이냐" 하고 항거하다 참살 당했다

이들의 충절을 기리는 오성인의 묘가 오성산 정상에 내란이 안치돼 있다

/군산=김광곤 기자

국제철도 중심역할 구상...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국제 여객·화물 철도역 구축전략, 한중 열차페리 도입 등 제안

익산시가 국제 여객 및 화물철도 구축전략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모색하며 국제철도 중심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18일 웨스틴라이프 호텔에서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분과별로 △호남권 국제화물철도역 구축전략 △전북 초광역권 개발전략으로서의 한중 열차페리 도입 구상 △장래 국제철도역으로서의 현황과 필요시설 △중국의 철도와 대륙철도의 동향분석과 시사점 등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철도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특히 환황해권 시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국제화물철도역의 구축전략과



익산시가 국제 여객 및 화물철도 구축전략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모색하며 국제철도 중심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열차페리를 도입한 새로운 물류 이동 방법이 제안됐다. 여객수송을 위한 국제철도역으로서의 CIQ 세관 출입국과

나리, 검역)시설 마련, 대륙철도로서 발돋움을 위한 국제공항과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도와

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수도요금 19억4,400여만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일반·목욕·선박용 30% 공업용 10%의 수도요금(8월~11월)

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일반용 4만 3,516(11억1,000여만원)건, 목욕용 130(4,700여만원)건, 선박용 34(900여만원)건, 공업용 491(7억7,800여만원)건 등 총 4만4,171(19억4,400여만원)건을 인하였다

개소당 평균 감면액은 일반용 2만 5,500원, 목욕용 36만원, 선박용 25만

6,000원, 공업용 158만4,000원으로 건당 4만4,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했다"면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광곤 기자

청년창업·윈도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익산청년공유주방

익산시가 KTX 익산역 앞 K2에 청년공유주방을 열어 '청년 창업 과 윈도심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익산다이어로움 청년공유주방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 마련됐다

배달형 외식업 분야의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음식 문화 활성화로 윈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청년공유주방에 파스타 전문점인 뽕 파스타와 베이커리 카페 익산제빵소, 볶음우동 전문점 호랑이 공간으로 모두 3곳이 입주해 21일 첫 영업을 개시한다

시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운영자를 선정해 창업가비트도



육, 위생관리교육, 원가계산 및 부가가치 창출 방법 등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년간 전문컨설턴트로부터 매장관리, 플레이팅, 매출 및 고객관리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호랑이공간 운영자는 익산에서 치뤄진 전국 최대규모의 요리경연 대회인 NS cookfest 2022 in IKSAN 요리경연대회에서 일반부 장려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규제 완화

익산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익산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금리 상승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거주기간 제한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 등 인구유입 차원에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익산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 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 확보와 디지털 지적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옥리1·황등3·황등4·동고도리 지구 등 4개 지구, 2,507필지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달부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통하여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새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이다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 및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어 이용가치가 상승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